해 외 WORLD

– 특별기고

“불교가 마음과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대만불교에서 한국불교의 성장모델 보다

장마에 접어든 지난 주, 대만불교를 살펴보기 위해 중태선사와 불광산사, 자제공덕회, 자항사 등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인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학술답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인연이 주어졌던 것이다.

일행이 제일 먼저 방문한 사찰은 대만의 전형적인 사원인 용산사였다. 용산사는 타이베이 도심에 자리한 전통사찰로 일행이 방문한 시간은 저녁 퇴근 무렵이었다. 퇴근 후 참배하기 위한 사람들로 붐비는 사찰의 광경은 대만불교가 얼마나 생활불교로 자리하고 있는지를 실감나게 해주었다.

타이베이에서 1박을 한 일행은 다음날 오전 대만국립대학에서 세미나를 가진 후, 대중(臺中)에 위치한 현대식 대형사찰인 중태선사(中台禪寺)를 참배했다. 필자는 중태선사에서 첫 번째 대만불교 탐방에서 느꼈던 감동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중태선사의 웅장함이 아닌 종무소에서 직접 종무행정을 처리하는 스님들의 모습이었다. 사무에 중점을 둔 종무행정뿐만 아니라 참배객 안내, 사찰 청소, 건축불사 운력 등 한국불교에서는 스님들의 영역으로 여겨지지 않는 분야에서 조차도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의 자세로 사원을 지키고 있었다. 한국불교와는 사뭇 다른 이 광경은 불광산사와 자제공덕회에서도 지속되는 신선한 모습이다.

다음날에는 중태선사를 떠나 까오슝의 불광산사를 찾았다. 중태선사가 하나의 현대식 대형건물에 집약된 사원배치구조라면, 불광산사는 넓은 대지에 여러 건물이 산재해 있는 사원배치구조이다.

성운 스님으로부터 직접 인간불교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성운 스님이 말하는 인간불교는 부처님이 내걸었던 인간본위의 불교였다. 성운 스님은 인간불교를 설명하면서 우리 일행에게 “한국불교는 스님과 사찰을 위한 불교에서 사회, 가정, 신도를 위해 거듭나야 합니다”라고 당부했다. 잔잔한 미소 속에서 편안히 하신 말씀이셨으나, 한국불교의 현실에서 볼 때 결코 가볍지 않은 당부였다.



자제공덕회의 정사에서 스님이 양초를 만드는 모습.



대중들과 법당을 소제하는 모습.

성운 스님의 만남을 뒤로 하고 불광산사를 벗어난 일행은 대동(臺東)을 거쳐 화련(花蓮)으로 이동해 자제공덕회를 방문했다. 자제공덕회에서의 일정은 자제병원을 거쳐 정사정사에 이르는 순례였다. 자제병원에서 만난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타행(利他行)이 자리행(自利行)이 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또 정사정사에서 양초와 미숫가루를 만드는 스님의 모습은 중태선사와 불광산사에서 접하였듯이 권위를 벗어난 인간적인 모습이었다.

우리 일행이 이번 대만불교 답사를 통해 접하고 들었던 것은 속세를 떠난 스님들의 수행담이나 깨달음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중태선사의 유각 스님, 불광산사의 성운 스님, 자제공덕회의 증엄 스님 등 오늘날의 대만불교를 자리매김 시킨 스님들은 한결같이 “불교가 사회로 마음으로 생활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의 실천을 ‘인간불교’를 통해 실현하고 있었다. 불교교학을 주로 연찬(研鑽)해 온 우리 일행에게 ‘인간불교’를 실천하는 대만불교의 모습은 침체된 한국불교가 지향할 중요한 모델로서 다가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조기룡(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조교수)

고령화시대에 맞는 전문노인요양원 ‘우뚝’

삼천사 인덕원, 21세기형 최첨단 노인복지타운 문열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절반 이상이 불자들입니다. 급속화 되는 고령화시대에 불교계의 발 빠른 대응이 절실합니다.”

불교계 복지포교의 ‘성공모델’로 꼽히는 삼천사 인덕원 대표이사 성운 스님이 또 한 번 큰 불사를 일으켰다.

성운 스님은 최근 국내 최대 노인복지시설인 ‘인덕노인종합복지타운’을 개관해 30년 복지포교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인덕노인종합복지타운은 삼천사가 기존의 요양시설인 호암마을을 대신해 총공사비 150여 억원을 들여 건립한 시설. 소요비용 150억 중 국고지원은 40%로, 나머지 60%를 자비부담했다. 시설은 대지3110㎡, 건물 6488㎡의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로 300여 병상을 소화할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를 자랑한다.

인덕원은 복지포교 30년의 운영노하우로 큰 규모만큼이나 시설 내 서비스와 운영방식 또한 차별 · 선진화해 인덕원만의 21세기형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성운 스님(원내)의 30년 복지포교 노하우의 결실을 그대로 담은 인덕노인종합복지타운. 태양열시스템, 종교별 공간 마련, 1:1케어 등 21세기형 선진노인복지시설을 지향하고 있다.

‘One-Stop 토탈케어시스템’을 표방하는 시설은 치매 ·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에게 필요한 의료 · 재활 · 문화 · 여가 · 작업치료 · 종교생활 등이 한 곳에서 모두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에너지절약과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설계가 국내 요양시설 최초로 도입돼 눈길을 끈다. 전력수요가 높지 않은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수축열 시스템, 집열기에 태양열을 모아 물을 데워 온수와 급탕으로 활용하는 태양열 시스템 도입은 그야말로 21세기를 지향한다.

이와 함께 인덕원은 최신 전자동 목욕기를 도입, 와상 · 와병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어르신들이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했다. 당뇨 · 고혈압 등 각 어르신 건강상태에 따라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180여 대의 CCTV를 설치해 사전에 사고 발생을 최소화한 것도 특징. 시설 곳곳에 설치된 CCTV는 24시간 어르신의 안전을 철저하게 살펴 어르신과 가족 모두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인덕원은 불심을 갖춘 150여 명의 전문 인력과 1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인적네트워크로 24시간 1:1케어가 가능하도록 해 타 시설과의 차별화를 꾀했다.

특히 서울의 지붕인 북한산에 둘러싸여있는 인덕원 주변 절경은 한 폭의 그림 같다. 인덕원은 건물 옥상에 하늘공원을 조성, 원두막을 마련해 어르신과 가족이 편하게 쉬며 자연경관도 구경할 수 있도록 했다.

불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지만 마리아의 집, 예수마을, 붓다마을 등 각 종교별 공간이 마련된 것도 눈에 띈다.

성운 스님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용시설의 종교적 편향에 의해 어르신이 평생 믿어온 종교를 바꿔야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어르신의 인권 존엄과 신앙의 자유를 누리도록 배려했다”고 말했다.

“고령화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전문노인요양 인덕원이 되겠습니다.”

이나은 · 이은정 기자

천태종 복지재단 신규위탁체 선정

서울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으로 최종 선정

천태종복지재단(대표이사 정산)이 서울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신규위탁체로 선정됐다.

7월 말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서울시복지재단이 최근 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총 26개 항목을 심사, 서울시가 결과보고를 토대로 천태종복지재단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발표를 접한 천태종복지재단 사무총장 월도 스님은 “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아 서울의 훌륭한 노인복지기관을 운영하게 되어 기쁘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고 공정한 심사과정을 걸쳐 선정된 만큼 우리 재단의 투명성과 노인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 같아 더욱 흐뭇하다”고 말했다.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나태선 부장은 “불교 주요종단인 천태종의 복지법인이 신규위탁법인으로 선정돼 마음 든든하다”면서 “그동안 열심히 일한 29명의 직원이 다시 한마음으로 뭉쳐 서울시 최고의 어르신 복지서비스기관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시 강북구 인수동에 위치한 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433㎡의 규모로 2000년 10월 개관한 이래 다양한 사회교육사업, 기능회복사업, 재가복지사업, 복리후생사업, 지역복지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현재 복지관은 하루 평균 1400여 명의 어르신이 방문해 이용중이다. (02)992-6783

이나은 기자

조계종 복지재단, 지난 15년 공과 말하다

불교사회복지연구소 23일 사회복지정책포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이 2010년 창립 15주년을 앞두고 성과와 미래를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복지재단 산하 불교사회복지연구소는 7월 23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15년의 성찰과 미래비전’을 주제로 전법회관에서 사회복지정책포럼을 열었다.

김응철 교수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15년의 회고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복지재단은 한국 불교복지의 중흥조로서 역할을 다하며 120여 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괄목할만한 규모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복지재단이 주체가 돼 공공복지시설 위탁만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 더 이상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며 한계점을 지적했다.



불교사회복지연구소가 7월 정책포럼으로 조계종 복지재단의 15년간의 공과를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전문 인력의 부족 △복지연구소 운영의 한계, 연구성과의 회향 미비 △불교사회복지 이념 정립의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꼽으며 “불교복지분야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복지영역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 연구 인력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02)723-5101

이나은 기자

향적스님의 가톨릭 수도원 체험기
프랑스 수도원의 고행
Un pèlerinage dans un monastère de France

해인에서 삐에르-끼-비까지

수도원의 체험은 향적스님의 안목과 지평地平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바로 이때가 향적스님의 견성체험見性體驗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비록 종교적 교의가 다르고 의식과 문화가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원에서 서로 같은 점을 찾아내고 궁극적으로 서로 일치하고 있는 점을 깨달은 것 같다. 정휴스님 |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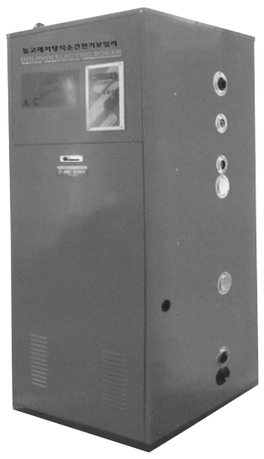
동양인으로서는 쉽지 않은 서양 가톨릭 수도원의 생활이었으나 향적스님은 겸손함으로 우리 수도사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더불어 우리 수도원의 의식과 생활을 함께 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종교를 신봉하지만, 상호의 종교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F. Luc, abbé | 삐에르-끼-비 수도원 원장

세월이 흐를수록 따뜻한 향기와 기품을 더해가는 수행자의 모습이 곳곳에 스며있는 책, 항상 열린 마음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타종교의 문화를 폭넓게 수용하는 스님의 글들은 연꽃처럼 둥글고 아름다운 지혜로 우리를 초대 합니다. 이해인 | 수녀 · 시인



김시조 PUBLISHERS
도서구입문의
TEL. 02)2278-8728 FAX. 02)2278-8729
E-MAIL. gumsijo@yahoo.co.kr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